

# 정부 할인지원에 사과 소매가 안정세

### 최근 한 달 18.3% ↓...배는 제자리 직수입에 바나나·망고 가격 하락 작황 부진에 양배추·배추가격 급등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사과 소매 가격이 최근 한 달 새 1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황이 부진한 양배추는 같은 기간 25.4% 오르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다.

◇사과 소매가격 한 달 새 18.3% ↓...배 소매가는 제자리 =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4286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8.3% 내렸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 유통사에 사과 납품단가와 할인행사를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사과는 병해와 병해 등으로 지난해 생산량이 30.3% 줄어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한때 '금(金)사과'로 불리기도 했다.

다만 1년 전, 평년 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4.6%,

2.6% 비싼 수준이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 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다.

배 소매가도 할인 지원이 적용돼 10개(신고·상품)에 4만3312원으로, 한 달 전(4만3145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62.2%, 평년과 비교하면 21.7% 비싸다. 배 역시 지난해 기상 재해 여파로 생산량이 26.8% 감소했다.

정부 할인 지원 등의 영향으로 토마토와 딸기 가격도 한 달 새 각각 16.9%, 23.2%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30일야아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방울토마토는 1kg당 1만4329원으로 1개월 전보다 8.4% 올랐고, 1년 전보다 21.6% 비싸다.

참외는 10개에 3만1266원으로 1년 전보다 9.8% 저렴하지만, 평년보다는 12.8% 비싸다.

정부 직수입 물량 공급에 따라 수입 과일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바나나(상품) 100g당 소매가는 278원으로 한 달 새 17.2% 하락했고 망고(상품) 1개 소매가는 3392원으로 5.5% 내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바나나와 망고는 각각 15.9%, 42.6% 저렴해졌다.

오렌지(네이블 미국·상품) 10개 소매가는 1만 5413원으로 한 달 새 9.1% 하락했고 1년 전보다 2.8% 내렸지만, 평년보다는 25.0% 비싼 수준이다.

◇작황 부진에 양배추·배추 소매가는 올라 = 기상 여건 탓에 일부 채소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양배추(상품)는 포기당 4862원으로 한 달 새 25.4% 올랐다. 이는 1년 전, 평년 가격과 비교해 각각 28.1%, 32.2% 비싸다.

양배추는 전남 등 주산지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일조량이 부족한 탓에 작황이 나빴다. 작황 부진에 배추도 포기당 4318원으로 한 달 전보다 9.2% 올랐다. 이는 1년 전보다 19.6%, 평년보다 17.3% 비싼 수준이다.

반면 시금치는 100g에 747원으로 한 달 전보다 16.1% 내렸고 풋고추(100g당 1808원)도 한 달 전보다 19.3% 떨어졌다. 그러나 시금치와 풋고추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14.0%, 24.8% 올랐다.

다다기 오이는 10개에 9626원으로 한 달 전보다 38.2% 떨어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평년보다 17.4% 비싸다. 애호박은 1개에 1724원으로 한 달 새 35.5% 하락해 1년 전보다 15.1% 저렴해졌으나 평년보다 12.4% 높은 수준이다.

대파의 경우 1kg에 2477원으로 한 달 전보다 37.4% 싸고 1년 전보다 21.7% 낮은 수준이다. 쪽파는 6906원으로 1개월 전보다 18.1% 내렸으나 1년 전보다는 45.3% 올랐다.

정부는 이달 일조시간이 늘고 참외, 수박 등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 '농사만사'

### 제발 밭농사에도 신경 좀 써주세요

#### 고령·여성 농업인 어려움 호소...임대 관리기만 '열일'

4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다. 연일 봄비까지 촉촉하게 내려 농업인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든다. 아직은 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부들은 덜 하지만, 밭농사를 하는 이들이나 텃밭을 일구는 도시농부의 손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들은 관리기며 경운기를 이용해 밭을 고르고 골을 만들어 비교적 손쉽게 밭농사 준비를 한다. 하지만 농기계가 없는 농업인들은 숙만 태우기 마련이다. 삽과 곡괭이 등 인력으로 하거나 합틀고, 그렇다고 빌려서 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사러하기도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시 근교에서 밭을 일구는 한 지인은 운용하기 힘들지만, 굳이 중고 경운기를 장만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계 없이 농사를 짓는 이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밭을 가는 작업은 대규모일 경우 트랙터나 경운기를 사용하지만, 노인·여성 농업인이 증가한 요즘은 대부분 소형 경운기나 관리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 4-5월 농업인이 가장 필요로 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농사용 '관리기'인 이유다. 밭을 고르고 모종을 심을 두둑을 만드는 관리기는 구굴, 로타리, 피복 관리기, 관리작업기 등 쓰임새별로 종류도 다양하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지자체들이 농기계 임대사업과 기술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확대·운영하는가 하면 장성군 등 전남의 지자체들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총 4곳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인 장성군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유 중인 임대 농기계 87종 726대에 대한

일제 정비를 마쳤다.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잔가지 파쇄기도 갖췄다. 또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제 시행과 함께 원하는 장소에 농기계를 배달해 주는 '농기계 택배 서비스'도 이어간다.

농기계 임대는 특히 노령의 농업인들에게 인기라고 한다. 농촌 고령화의 슬픈 현실이지만, 한 자치단체의 조사결과 사업 이용자 중 60세를 넘긴 농업인(65세 이하·70세 초과) 비율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 농업인들이 임대사업소를 주로 찾았다고 한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각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령층을 위한 농기계와 농기계 관리 장비를 추가 구매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증가하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매에 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 농부들의 고민은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해서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다. 쌀농사가 주가 돼 한해 농사의 풍년과 흉년에 웃고 울던 때와 달리 쌀농사도 짓고 특용작물이나 밭농사를 합해서 좋은 결실을 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밭농사가 중요해 졌음에도 기계화의 최정점에 달한 쌀농사와 비교해 기계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더욱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 기계화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의 지원은 물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젊은이

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분에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정부나 지자체들이 밭농사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농촌이 초고령화되고 노인·여성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보다 스마트하게 기계화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bigkim@kwangju.co.kr

### 광주농협·북광주농협

#### 하나로마트 매출 달성탑 수상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 3일 광주농협(조합장 김순택)과 북광주농협(조합장 구상봉)이 '하나로마트 매출 달성탑'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하나로마트 매출 달성탑은 마트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말 매출액 기준 100억원 단위 초과 달성한 조합에 수여하는 상이다. 광주농협과 북광주농협은 각각 지난해 600억원, 100억원 달성탑을 수상했다. 특히 광주농협은 2022년 500억원 달성 후 불과 1년만에 600억원을 달성했으며, 북광주농협은 2023년 7월 개장 후 단기간에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난 3일 2023년 하나로마트 매출 달성탑 시상식에 참가한 농협 광주본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빈번해진 봄 서리에 과수 냉해 증가...과일 공급 부족 주요인

### 농촌경제연구원 '봄철 동상해' 보고서

#### 빨라진 개화 시기 맞물려 큰 피해

과일 공급 부족의 주원인인 냉해를 일으키는 봄철 서리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기후위기와 농업·농촌의 대응:봄철 동상해(서리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기상이변으로 봄철(3월 하순~4월 말) 서리 발생

빈도가 전국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리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대기 중 수증기가 물체 표면에 붙어 얼어붙은 것으로, 매년 과수 농사 피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냉해의 원인이 된다.

특히 지난해 수확기부터 최근까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사과의 주요 생산지인 춘천, 청주, 대구 등에서 서리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3년까지 매년 10회 이상 서리가 발생했지만 2019년 이후 연 5회를 맞돌

고 있는 반면, 춘천의 경우 10여년째 봄철 서리 발생 빈도가 지속 증가해 연 평균 15회, 지난 2020년에는 한 해에만 30회 이상의 서리가 관측되기도 했다.

대구 역시 지난 2017년까지 서리가 0회 발생했지만, 지난해에는 5회 이상 서리가 발생했다.

김태후 KREI 연구위원은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사전예방부터 신속한 피해 신고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후보상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대응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농식품부, 중소형마트에도 직수입과일 판매

### 골목상권 매장 1만2천여곳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일값 안정을 위해 직수입한 과일을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소형 마트에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형 슈퍼마켓연합회, 나들가게연합회와 연계해 전국 골목상권 1만2000여개 점포에 오렌지를 할인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점포 250곳에 초도물량 8.2t을 공급했다. 농식품부는 중소형마트에 공급할 직수입 과일 품목을 오렌지뿐 아니라 바나나,

체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골목상권에서도 수입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 물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훈 차관은 이날 경기 광명시 중소형마트인 엘지슈퍼와 세이브존 광명점을 각각 찾아 직수입 과일 공급 상황을 살폈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지난달 21일부터 바나나, 오렌지 등을 직수입해 대형마트 등에 3천435을 최대 20% 할인한 가격에 공급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수목장

삶의 마지막,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